



올림픽 D-15 메달 기대주 ⑨ 핸드볼 윤경신

# ‘붉은 악마’ 단체복 입고 응원 가능

## “4번째 이자 마지막 도전 12년 노메달恨 풀어야죠”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메달 도전이네요.”

한국 남자핸드볼 대표팀의 레프트백 윤경신(35·부산·사진)은 올림픽과는 인연이 없었다.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 때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은 데 이어 쿠웨이트에 출전권을 빼앗겼던 1996년 애틀랜타 대회를 제외하고 한 차례도 올림픽 대표팀에서 빠진 적이 없다.

고려고에 다니던 1990년 베이징아시아인계인 대표로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던 윤경신은 경희대 입학 첫 해인 1991년 핸드볼큰잔치 신인왕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성인 무대에 데뷔했다. 1993년부터 3년 연속으로 핸드볼큰잔치 득점왕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특급 골잡이로 이름을 날린 윤경신은 하지만 핸드볼이 만년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을 떠나 세계 최고 리그인 독일 프로핸드볼 분데스리가에서 뛰며 ‘세계적 스타’ 반열에 올랐다.

경희대를 졸업한 1996년 분데스리가 금메달리스트로 진출한 윤경신은 여섯 시즌 연속에 통산 7차례 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타고난 ‘득점기계’였다. 203cm의 큰 키를 이용해 공격에서 쏘는 슈팅은 아무리 뛰어난 골키퍼라도 막기 힘들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12년 독일 생활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역에서 은퇴한 것은 아니다. 남자 실업 두산과 계약했고 교묘인 경희대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학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특급 스타로 군림했지만 윤경신은 올림픽 메달과 거리가 멀었다. 항상 한국 남자핸드볼을 대표하는 주포로 맹활약했지만 대표팀의 전력은 매년 유럽의 벽을 넘기 힘들었다.

첫 올림픽 출전 이후 16년이 지나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윤경신은 나산다. 19살이었던 바르셀로나 대회 때나 35살도 노장이 된 지금까지 윤경신은 변함없이 한국의 득점을 책임지는 골잡이다. 하지만 윤경신의 올림픽 메달 도전



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2012년 런던 대회는 포기하고 베이징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하기로 결심했다.

그만큼 윤경신에게 베이징 대회는 특별하다. 못 이룬 올림픽 메달의 꿈을 현실로 만들 마지막 기회다.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메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자신을 비롯한 조차호(바링겐), 백원철(다이도스틸), 강일구(인천도시개발공사) 등 노장들이 견제한 데다 중간층인 이재우(다이도스틸), 윤경민(하나은행), 김태완(하나은행), 이태영(코로사), 박찬용(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의 실력도 절정에 이르렀다. 특히 정수영(코로사), 정의경(두산), 고경수(하나은행) 등 신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기량이 급성장했다.

윤경신은 지난달 초 태릉선수촌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올림픽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했다. 나이도 있지만 워낙 힘을 기른 소문난 핸드볼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는 데도 오랜만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윤경신은 “마지막 올림픽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필뉴스



### 올림픽 소식

#### 올림픽조직위 입장 허용

○“우리나라의 ‘붉은악마’나 1만명의 국민 응원단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단체 응원을 하고 한국 선수 응원이 가능하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23일 응원단이나 소수인종, 가족, 연인들에 대해서는 색상이 디자인이 같은 옷을 입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

중국은 지난 14일 디자인이나 색상이 같은 옷을 입은 관중에 대해서는 경기장에 집단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관람규칙’을 발표했다. 중국 관중은 물론이고 한국 등 세계 각국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문의와 항의가 폭주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질의가 쏟아지자 규정을 명문화.

조직위는 규정 개정을 통해 복장에 특별한 의도가 없고 다른 관중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며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면 같은 옷을 입고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환경이나 종교, 기업 홍보, 정치나 군사적인 구호, 인권 등을 암시하는 옷을 입은 관중들은 500위안(7만5천원)의 벌금형이나 15일간의 구속형.

#### 中 야오밍 등 출전선수 발표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야오밍(姚明·229cm)과 허들 영웅 류샹(劉翔), 한때 일신설이 나돌았던 ‘다이빙여제’ 귀징징(郭晶晶), 워블던테니스 4강의 주인공 정제(鄭潔) 등 중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도 올림픽에 출전.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23일 600

여명 규모로 전망되는 중국 올림픽 대표선수 중 남자 축구, 남자 농구, 남자 체조, 여자 배드민턴, 여자 축구, 복싱, 태권도, 사격, 여자 테니스, 마술, 다이빙, 육상 등의 종목에 출전할 선수 13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고 보도.

남자 농구대표팀에는 야오밍과 왕즈즈, 이젠렌 등 미국프로농구(NBA)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타들을 포함해 12명이 발탁.

한때 일신설이 나돌아 대표팀에서 제외된다는 추측이 나돌았던 귀징징, 남자 110m 허들의 영웅 류샹을 비롯해 육상 대표선수단의 명단도 확정됐고 중국인으로서 최초로 워블던 여자테니스 4강에 올라 중국을 흥분시켰던 정제도 대표팀에 안착.

#### 소프 “펠프스 8관왕 불가”

○“현역에서 은퇴한 ‘인간어린’ 이안 소프(26, 호주)는 ‘수영왕제’ 마이클 펠프스(23·미국)가 베이징올림픽에서 목표로 내세운 8관왕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

23일 호주 일간 ‘해럴드 선’에 따르면 소프는 “펠프스가 금메달 8개를 딸 수 있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 지구상에서 8관왕을 이룰 수는 펠프스 하나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소프는 8관왕 달성이 힘든 이유로 펠프스의 경쟁자들이 갈수록 거리를 좁혀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 대표선발전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펠프스는 자신의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했지만 2위 라이언 로치트와 겨우 0.42초 차이를 기록.

#### 파월, 볼트 꺾고 100m 우승

○“아사과 파월(26)이 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인간탄환’ 대결에서 자메이카 대표팀 동료이자 세계기록(9초72)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22)에 승리.

파월은 2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슈퍼그랑프리대회 남자 육상 100m에서 9초88로 결승선을 통과해 9초89를 기록한 볼트를 제치고 우승.

파월의 시즌 최고 기록인 9초88은 올해 작성된 공인 기록 중 6위이다.



## “추성훈 9월 日 종합격투기 드림대회 출전”

### 日 스포츠초치 보도

재일교포 격투기 스타 추성훈(33·일본명 아키야마 요시히로)이 9월 일본 종합격투기 드림 대회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스포츠 일간 ‘스포츠초치’는 23일 “추성훈이 9월23일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열린 ‘드림 6’을 통해 연속으로 격투기 대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드림 5’ 대회 미들급 원패치에

## 문대성 “IOC 선수위원 맡아주세요”

2008 베이징올림픽이 다가오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도전장을 던진 ‘태권도 영웅’ 문대성(32·동아대 교수·왼쪽)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2004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 이상급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은 23일 오후 올림픽축구대표팀이 훈련 중인 파주 NF(C)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를 방문, 선수단에 IOC선수위원으로 뽑힐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했다.(사진)

IOC선수위원은 다음 달 5일부터 20일 까지 올림픽에 참가하는 1만 5천여 선수들의 투표를 통해 4명이 새로 선출된다. 발표는 8월21일 이뤄질 예정이다.

IOC의 선수 분과위원 19명 중 15명은 8년 임기의 IOC 위원(총 115명) 자격까지 얻는다. 문대성이 도전한 선출직 위원은 12명(하계종목 8명+동계종목 4명)이며 IOC 위원장이 대륙별, 성별, 종목별로 안배해 지명하는 나머지 7명의 분과위원 중

### 선출직 도전 ‘표발 다지기’

#### 올림픽 선수들 직접 투표

3명이 추가로 IOC 위원으로 뽑힌다. 한국에서는 2000년 이은경(양궁)을 시작으로 2002년 전이경(소프트트랙), 2006년 강광배(무지 봅슬레이)가 도전했지만 아직 선출직 IOC 위원에 뽑힌 적은 없다.

문대성은 일단 28일 중국 칭다오로 건너가 요트 및 조정 경기에 나설 선수들을 상대로 투표 활동을 한 뒤 다음달 8일 베이징으로 들어가 마지막 ‘표발 다지기’에 나설 계획이다.



24일(목)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 뉴욕M> (08 : 00·Xsports)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13 : 50·Xsports) ▲KBS레 매슬링대회(14 : 10·KBS1)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 준결승(14 : 50·Xsports) ▲기쁨들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중등

부·고등부 (15 : 00·KBSN SPORTS) ▲프로야구 <두산 : 한화>(18 : 00·KBSN SPORTS), <기아 : 삼성>(18 : 20·Xsports), <우리 : LG>(18 : 30·MBCESP), <롯데 : SK>(18 : 10·SBS스포츠) ▲2008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 1R(21 : 00·SBS골프) 25일(금) ▲월드리그 배구 결승라운드 (01 : 00·KBSN SPORTS) ▲2008 PGA RBC 캐나다오픈 1R (04 : 00·SBS골프·SBS스포츠)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수원지구 건물임대 1층 330㎡ 분할가능 2층 340㎡ 170㎡

첨단일계공인중개사 급매매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원)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국민공인중개사 한 011-635-7939, 010-2810-6103